

2018년 11월 7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중간선거 앞두고 상승

여론조사 기관 하원 선거 민주당(230~235 석) 승리 예상

미-중 무역분쟁 우려 완화 기대 확산

미 증시는 중간선거 결과를 앞두고 기술주와 산업재가 강세를 보이는데 힘입어 상승. 시장에서는 하원에서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미-중간 무역분쟁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 이에 힘입어 산업재가 상승하고 있으며, 더불어 기술주는 대형 기술주에 대한 호재성 재료가 유입되며 상승 주도(다우 +0.68%, 나스닥 +0.64%, S&P500 +0.63%, 러셀 2000 +0.49%)

미 증시 상승은 미-중간 무역분쟁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며 상승. 먼저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 여론 조사 기관인 리얼클리어 폴리틱스가 하원 의석수에 대해 민주당은 203 석, 공화당은 194 석, 경합은 38 석으로 전망. 또 다른 여론 조사 기관인 파이브서티에잇은 민주당의 하원 의석수를 230~235 석, 공화당은 200~203 석으로 전망하는 등 대부분 여론 조사 기관은 민주당이 하원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시장 참여자들은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의 2 차 세계개편안은 쉽지 않으며, 예산안을 불모로 인프라 투자 또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특히 미-중간 무역분쟁과 관련해 트럼프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조치 등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이에 감안 미-중간 무역분쟁 우려감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한편, 지난 10 월 31 일 시진핑 주석이 주관한 정치국 회의결과 중국의 무역분쟁 관련 태도 변화가 감지된 가운데 전일 중국의 왕치산 부주석이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주장. 그동안 조용했던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분쟁 협상관련 우호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 시장은 중간 선거와 더불어 기대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에 힘입어 무역분쟁에 민감한 소재, 산업재 등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 더불어 기술주 또한 자사주 매입 증가 및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이 유입되며 상승한 점도 특징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089.62	+0.61	홍콩항셱	26,120.96	+0.72
KOSDAQ	691.55	-0.06	영국	7,040.68	-0.89
DOW	25,635.01	+0.68	독일	11,484.34	-0.09
NASDAQ	7,375.96	+0.64	프랑스	5,075.19	-0.51
S&P 500	2,753.68	+0.56	스페인	8,988.90	-0.24
상하이종합	2,659.36	-0.23	그리스	629.84	+1.78
일본	22,147.75	+1.14	이탈리아	19,268.29	-0.0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기술주, 산업재 상승

애플(+1.08%)은 오픈하이머의 에널리스트가 매수의 기회라고 주장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알파벳(+1.31%), 아마존(+0.92%), 페이스북(+0.85%) 등 주요 대형 기술주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했다. 보잉(+1.24%), 캐터필라(+2.31%), 3M(+1.06%) 등 산업재는 미-중간 무역 분쟁 우려감이 완화될 여지가 높다는 전망이 부각되자 상승 했다.

IBM(+2.55%)은 전일에 이어 주요 임원들이 주식을 순매수 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상승 했다. 브로드컴(+3.71%)은 보안업체 인수 소식에 힘입어 상승 했다. CVS헬스(+5.71%)는 양호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 했다. 에트나(+3.87%), 유니티드헬스(+0.97%) 등도 동반 상승 했다. 반면, 매리어트(-5.08%)는 부진한 실적 발표로 하락 했다. 힐튼(-2.50%), 익스피디아(-1.47%) 등도 동반 하락 했다. 국제유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노코필립스(+0.68%), EOG 리소스(+0.92%) 등은 견고한 흐름을 보였다. 한편, 아마존은 새로운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고객들에게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AMD(+3.92%)는 급등 한 반면, 경쟁사인 인텔(-0.88%)은 하락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89%	대형 가치주 ETF	+0.61%
에너지섹터 ETF	+0.19%	중형 가치주 ETF	+0.74%
소매업체 ETF	+0.14%	소형 가치주 ETF	+0.47%
금융섹터 ETF	+0.52%	배당주 ETF	+0.77%
기술섹터 ETF	+0.63%	변동성 ETF	-2.96%
소셜 미디어업체 ETF	+0.81%	대형 성장주 ETF	+0.76%
인터넷업체 ETF	+0.40%	중형 성장주 ETF	+0.44%
리츠업체 ETF	+0.55%	소형 성장주 ETF	+0.56%
주택건설업체 ETF	-0.28%	신흥국 고배당 ETF	-0.38%
바이오섹터 ETF	+0.44%	신흥국 저변동성 ETF	+0.25%
헬스케어 ETF	+0.51%	하이일드 ETF	+0.20%
곡물 ETF	-0.45%	물가연동채 ETF	-0.04%
반도체 ETF	+1.04%	Long/short ETF	+0.5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10.77	+0.34%	+3.31%	-11.44%
소재	343.99	+1.51%	+6.07%	-1.43%
산업재	605.69	+1.10%	+3.94%	-7.57%
경기소비재	857.13	+0.54%	+4.70%	-4.29%
필수소비재	577.90	+0.55%	+1.10%	+3.90%
헬스케어	1,047.35	+0.52%	+2.21%	-4.18%
금융	446.26	+0.50%	+3.85%	-4.27%
IT	1,212.20	+0.61%	+2.10%	-5.43%
커뮤니케이션	150.29	+0.60%	+1.70%	-3.94%
유틸리티	275.40	+0.76%	-0.05%	-0.04%
부동산	201.80	+0.52%	+0.34%	+1.0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외국인 선물 동향 주목

MSCI 한국 지수는 0.84% 상승 했으나, MSCI 신흥 지수는 0.17%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860 계약) 여파로 0.25pt 하락한 271.8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20.9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승 했다. 특히 주요 여론 조사 기관이 하원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미-중간 무역분쟁 관련 태도 변화를 시사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미 증시 상승 요인은 전일 한국 증시에 이미 반영이 되었다는 점에서 오늘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이보다 미국의 중간선거 출구조사 결과 및 개표 결과가 주목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시각 오전 8 시에 인디애나주가 가장 먼저 투표가 종료되며 플로리다 주 등은 한국 시각 오전 9 시에 종료 된다. 동부 및 중부 지역의 경우는 오전 10 시에 투표가 종료된다. 미국은 대부분 전자식 개표를 하기 때문에 한국 증시 오전에는 주요 지역의 개표가 완료되어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 증시는 출구조사 결과 및 개표 결과를 알 수 있는 오전에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FOMC 및 한국 옵션만기일을 앞두고 있어 외국인 선물 동향에 따라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선거 결과에 따라 미-중 무역분쟁 협상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중국 증시 변동 또한 주목된다. 이들의 변화에 따라 오늘 한국 증시는 변화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견고한 미국 고용지표

미국 9 월 채용공고가 전월(729.3 만건) 보다 감소한 700.9 만 건으로 발표되었다. 다만, 절대 수치로는 사상 최고치 근처에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고용시장의 견고함이 이어지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운송, 헬스케어, 식당은 증가했으나, 건설과 제조업은 채용 공고가 감소 했다. 한편, 이직률은 2.7%로 유지되어 여전히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job 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

국제유가는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EIA(미 에너지 정보청)가 단기에너지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산유량 전망을 상향 조정 하고, 유가 전망은 하향 조정 하자 하락 했다. EIA 는 미국 2018 년 산유량에 대해 하루 평균 1,074 만 배럴에서 1,090 만 배럴로 상향 조정 했다. 2019년에는 하루 평균 1,176 만 배럴에서 1,206 만 배럴로 상향 조정 했다. 국제유가(WTI)는 2018년에는 68.46 달러에서 66.79 달러로, 2019년에는 69.56 달러에서 64.85 달러로 하향 조정 했다.

달러화는 미국 고용지표가 비록 전월보다는 둔화 되었으나, 여전히 견고함을 보인 데 힘입어 여타 환율에 소폭 강세를 보였다. 한편, 파운드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인 반면, 엔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인 점도 특징이었다. 파운드화는 브렉시트 타결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 언론사에서 브렉시트 투표를 다시 한다면 54%가 EU 에 잔류를 선택할 것이라고 응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특히 영국의 브렉시트 장관이 영국 국무회의에서 타협점을 찾았음을 시사한 점도 파운드화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약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견고한 고용지표에 힘입어 상승 했다. 더불어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 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10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51 배) 보다 소폭 증가한 2.54 배를 기록하자 금리 상승폭은 제한 되었다.

금은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선호심리 완화 여파로 하락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유입되며 약보합권에 그쳤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 가격은 1.17%, 철근도 1.53%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62.21	-1.41	-6.00	Dollar Index	96.282	+0.00	-0.75
브렌트유	72.13	-1.42	-5.03	EUR/USD	1.1417	+0.09	+0.63
금	1,226.30	-0.49	+0.08	USD/JPY	113.47	+0.25	+0.30
은	14.500	-1.00	+0.26	GBP/USD	1.3097	+0.43	+3.08
알루미늄	1,950.50	-1.24	-0.84	USD/CHF	1.003	-0.15	-0.22
전기동	6,158.00	-0.53	+2.09	AUD/USD	0.7225	+0.19	+1.69
아연	2,501.00	-0.75	-1.92	USD/CAD	1.3128	+0.14	+0.14
옥수수	373.25	-0.20	+2.33	USD/BRL	3.7643	+0.97	+1.19
밀	512.00	+0.94	+2.45	USD/CNH	6.9232	+0.15	-0.67
대두	884.25	-0.17	+4.40	USD/KRW	1123.80	+0.03	-1.35
커피	113.25	-3.29	+0.76	USD/KRW NDF1M	1120.95	+0.11	-1.57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3.220	+1.91	+9.72	스페인	1.581	+1.70	+1.60
한국	2.292	+2.00	+7.00	포르투갈	1.894	+1.40	+1.50
일본	0.131	+0.30	+0.90	그리스	4.314	+4.50	+8.40
독일	0.434	+0.80	+6.50	이탈리아	3.394	+7.10	-7.80